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류 현 주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지도 신 지 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류 현 주

류현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년 6월 일

감사의 글

논문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신지철 교수님, 석사과정 시작부터 논문을 마칠 때까지 세심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향희 교수님, 다문화가정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셨던 김화수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많은 질문을 기꺼이 받아주셨던 박지은 선생님, 언어치료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신 언어치료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기꺼이 실험에 참여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지루할 수 있는 검사에 열심히 참여해 준 아동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이 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길고도 짧았던 대학원 5학기 생활 동안 동고동락한 경미, 부영, 수연, 사라, 영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의 마디마다 수정이가 함께 해 주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닳고 싶은 선배님들, 밝고 따뜻했던 후배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미안하고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가든지 믿어주시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와 믿음직한 동생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자 씀

차 례

그림 차례	ii
표 차례	iii
부록 차례	iv
국문 요약	v
제1장 서론	1
제2장 연구 대상 및 방법	9
2.1. 연구 대상	9
2.2. 선별도구	10
2.3. 본 검사 도구	12
2.4. 검사절차	12
2.5. 자료 수집	13
2.6. 자료 분석	13
2.7. 신뢰도	16
2.8. 통계분석	17
제3장 결과	18
3.1.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	18
제4장 고찰	23
4.1.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23
4.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26
제5장 결론	27
참고 문헌	29
부록	32
영문 요약	36

그림 차례

그림 1. 정상발달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변동	21
그림 2. 정상발달 아동,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변동	21

표 차례

표 1. 우리말의 자음체계	5
표 2. 우리말의 단모음체계	5
표 3. 전체단어 변동의 종류, 정의 및 예	14
표 4. 음소변화 변동의 종류, 정의 및 예	15
표 5. 다문화가정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PAC) 정조음 수	18
표 6.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이 동일하게 보인 음운변동	22

부록 차례

부록 1. 다문화가정 아동 기초정보	32
부록 2. 다문화가정 설문지 내용	33
부록 3. 동영상 촬영 동의서	35

국 문 요 약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의 특성을 연구한 자료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같은 정보부족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조음능력이 정상발달수준인지 조음장애의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PAC)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정상발달 아동과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만 3세 6개월에서 3세 11개월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PAC)의 그림을 보여주고 단어 수준의 자음 검사 수인 70개 중에서 정조음한 수를 기록하여 자음정확도를 측정하고, 조음 시 아동이 보인 음운변동 패턴을 기록하여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PAC)에서 제공하는 정상발달 아동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가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므로 단일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자음 오류의 수가 많이 나타난 결과 때문이다.

둘째, 파찰음 · 마찰음의 파열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이러한 파열음화는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 본 연구의 해당연령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보이다가 점점 출현율이 줄어드는 음운변동이다. 또한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 더 어린 연령대에서 나타났다가 본 연구의 해당연령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긴장음화와 연구개음화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

는 일부 관찰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정상발달 아동과 유사한 발달 패턴을 보이지만 이중언어에 노출되어 초기 조음발달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는 데에 따른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을 일본 다문화가정과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하여 음운변동을 살펴본 결과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은 전형적 어중 단순화와 유음의 단순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같은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집단 분류 기준이 어머니의 모국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어 특성과 아동 오류패턴이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어머니가 동일하게 보인 음운변동을 살펴본 결과 정상발달 아동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이완음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특이한 조음발달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문화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조음 관련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조음능력과 음운변동을 연구한 본 논문의 결과는 임상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 평가와 치료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적인 조음발달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문화가정 집단 내에서도 개별아동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임상현장에서는 개별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일 수 있는 특이한 모음 오류에 대해서는 검사도구의 특성상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모음의 수행력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어가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언어학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다문화가정, 조음능력, 음운변동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지도교수 신 지 철 >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류 현 주

제1장 서론

1.1. 이론적 배경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내용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발음도 정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이러한 조음능력을 큰 어려움 없이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의 학령 전기 및 학령기 아동들은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조음음운장애(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를¹ 겪을 수 있다. 조음음운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수는 대략 학령 전기 아동의 10~15%, 학령기 아동의 6%정도에 이를 정도로 조음음운장애는 흔한 의사소통장애라고 할 수 있다.²

조음음운장애의 원인은 크게 기질적(organic) 원인과 기능적(functional)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질적 원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생리적 결함이 있어서 조음에 오류를 보이는 경우로 청력 손실, 입술이나 구개의 파열, 설소대의 이상, 신경운동장애로 인한 마비성 조음장애, 실행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능적 원인은 신체적 결함 없이 연령, 성격,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영향, 학업성취도 등에 따라 음소의 습득이 늦거나 음운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혹은 습관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조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³

기능적 원인은 개인차와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조음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⁴ 지능이 조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⁵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개인차와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좀처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발달로 인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환경적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 중 하나가 결혼이민자여성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이다.

1.1.1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의 정의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공존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국제결혼가정, (2)외국인노동자 가정, (3)노동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이주민 가정으로 그 유형을 크게 분류할 수 있다.⁶ 2003년에는 3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에서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 대신에 ‘다문화 가족’ 이나 그의 자녀들을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한 결과, 관련단체들은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여성 가정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이중언어능력(bilingualism)은 유창성정도를 기준으로 두 언어가 모두 동등하게 유창한 경우, 한 언어로 의미 있는 발화를 다른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언어의 기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 최소 하나의 능력에서라도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두 언어로 의미 있는 발화를 완벽하게 산출하지는 못하지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이중언어능력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⁷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동시적 습득(simultaneous acquisition)으로 두 언어에 동시적으로 노출되어 생후 3세 이전에 동시 습득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연속적 습득(successive acquisition)으로 모국어(primary native language)를 생후 3세 이전에 우선 습득한 후 그 후에 다른 언어에 노출되어 제2언어를 습득한 경우

이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두 언어에 노출된 정도와 형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⁷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으로 정의한 결혼이민자여성 가정에서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를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1.1.2. 다문화 환경에서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의 인적 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모국어와 자국의 문화 환경 외에 제 2 언어 및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환경에 노출되는 기회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한국사회도 유례없이 외국인 이민자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단일 언어와 문화 환경이라는 말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 중 도시나 농촌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결혼이민자여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정환경 내의 아동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환경 속의 아동들은 언어발달과정에서 각 나라의 음운체계가 다른 데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경험하거나 모국어와 부차적인 언어 사이의 간섭현상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음운 측면에서 두드러진다.⁸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의 분류는 한국어만의 독특한 음운체계로 이러한 음운체계가 없는 핀란드어⁸나 영어⁹를 모국어로 한 화자는 이 같은 소리를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나아가 조음을 하는데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및 이중 언어 환경에서의 언어발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서구사회에서도 부차적인 언어와 모국어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관한 연구의 경우 아동이 /ʃ/를 /ʃ/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스페인어가 영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또한 스페인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4세의 유아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 환경이지만 영어나 스페인어 중 하나만을 사용하는 단일 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유아들에 비해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유아들이 전반적으로 조음명료

도가 낮으며 자음이나 모음의 오류가 많고, 불규칙한 오류형태를 산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¹¹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음 정확도를 연구한 결과,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경우에는 긴장도 및 기식도에 대한 음운변동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¹²

각 나라의 언어는 언어 목록에 존재하는 음소(phoneme)와 변이음(allophone)이 같지 않으며, 음소의 분류도 다르다. 또한 각 언어의 자음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산출될 수 있고, 언어마다 음운규칙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발음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언어 환경에 노출된 경우라면 조음하는데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¹³ 그러나 이중언어 화자들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또래에 비해 다른 낱말 형태를 나타내고 단일 언어 화자보다 처음부터 오류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나중에는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이다.¹⁴

1.1.3. 단일 언어 환경에서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조음 및 음운 능력의 발달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말소리가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 자음은 총 19개다(표 1). 조음장소 측면에서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나뉘고, 조음방법 측면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¹⁹ 우리말 모음에는 하나의 모음으로 된 단모음 그리고 활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이중모음이 있다. 학자마다 단모음을 7개에서 10개로 다양하게 나누지만 7모음 체계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층의 입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표 2)는 7개의 단모음을 혀 위치, 입술 모양, 혀 높이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7모음 체계에서는 예전에 단모음으로 발음되던 /기, 니/를 이중모음으로 분류하고, 현재 글자로만 구분되는 /히/와 /케/를 동일한 모음으로 취급한다.¹⁹

표 1. 우리말의 자음 체계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표 2.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ㅡ	ㅜ
중모음	ㅔ(ㅞ)	ㅓ	ㅗ
저모음		ㅑ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내용을 명료한 발화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데 이 때 조음의 정확성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점차 조음 및 음운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치료적 중재가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을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 아동이 조음 및 음운능력을 발달시키는지에 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발달을 예상할 수 있다.

자음정확도와 자음의 다양한 습득 연령을 고려한 연구 결과, 75% 이상의 아동이 바르게 산출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세에 파열음, 비음과 성문마찰음이, 3세에 파찰음과 치조마찰음 /쓰/가 습득되며, 또한 5세에 유음/ㄹ/가 습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연령별 자음정확도와 우리말 자음의 습득연령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 중에서 초성보다 종성이 먼저 발달하는 자음으로 /ㄹ/가 있었고, /ㄹ/는 초성과 종성의 습득연령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비음과 파열음 중에서 4세에 습득되는 것으로는 종성 연구개음 /ㄱ/와 /ㅇ/이 있었으며, 파열음의 평음, 경음, 격음 중에서 경음을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모음 발달에 관한 연구는 자음 발달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우리말 모음의 경우 3세 아동의 90%가 이미 모든 단모음과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8}

국외의 연구에서는 자음은 /p/→/m/→/t/→/k/ 순서로 습득하고, 모음은 /a/→/i/→/u/→/e/→/o/ 순서로 습득하며 이러한 음운의 습득 순서는 세계의 모든 유아에게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순서대로 유아가 음운을 습득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¹⁹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소리 습득의 순서는 상당히 유사하며 대개 파열음, 비음, 전이음이 먼저 숙달되고 그 다음은 유음, 마지막으로 마찰음, 파찰음이 숙달된다고 볼 수 있다.²⁰

음운변동에 있어서는 끝소리 탈락, 첫소리 탈락, 음절반복, 음정탈락, 구개음화, 성문음화, 파열음화, 측음의 모음화, 양순음동화, 전설음동화, 탈기식음화, 비음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3세에는 대치변동이 나타나지만 3세 6개월 이후에는 음운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²

1.1.4.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언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50%가 다문화 환경에 살고 있다.²³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2050년에는 인구의 약 50%가 다문화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라틴계 가족 문제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언어 환경에 놓이게 되는 어린 아이들의 언어 발달 촉진 문제가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다뤄지며, 지난 25년 동안 이와 관련한 연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²⁴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남성들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 또는 구소련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사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며 있다고 해도 주로 한국여성들의 경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여정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수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²⁵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2006년 전국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7,998명(초등학교 85%, 중학교 11.6%, 고등학교 3.6%)으로 2005년 6,121명에 비해 30.6% 증가하였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 뒤에는 읍이나 면 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음 및 음운발달, 또는 정상적인 오류패턴 등을 연구한 자료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일부 진행된 연구들도 수용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아동의 표현언어 및 조음의 산출 경향이나 패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²⁷ 이 같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자칫 아동이 이중언어 환경에서 언어를 습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을 조음장애의 요소로 잘못 평가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조음장애의 요소가 있으나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언어차이의 관점에서 중요한 언어중재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게 된다. 이렇듯 한 대상자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아동의 언어발달 뿐 아니라 조음능력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²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자료가 임상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 및 음운발달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언어장애와 언어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여성의 증가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환경 아동의 조음능력과 음운변동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이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이하 APAC)에서 제공하는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자음정확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 나. 음운변동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제2장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만 3;6~3;11 세 2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들은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만 3;6~3;11 세 아동 중에서 (1)부모의 보고에 의해 정서 및 행동적, 사회 심리적인 문제가 없으며, (2)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의 평가를 통해 조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고, (3)선별검사 시 청력이 정상범주에 속하는 아동들로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을 선정하였다. 또한 (4)표준화된 공식발달검사인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Korean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Revised, 이하 K-DDST-R)를 실시한 결과 12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고, (5)표준화된 수용어휘력 검사인 그림어휘력 검사에서 백분위수가 10%ile 이상이었다.

전체 수집한 26명의 아동 중 그림어휘력 검사 결과 백분위수가 10%ile 미만인 2명의 아동은 실험집단에서 제외하였고 총 24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별 분포는 몽골 1명, 키르키즈스탄 2명, 필리핀 5명, 중국 3명, 일본 10명, 태국 2명, 베트남 3명이었다(부록 1). 통제집단은 따로 선정하지 않고 APAC에서 제공하는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 자료를 참고하여 실험집단과 비교하였다.

3세에는 대치변동이 나타나지만 3세 6개월 이후에는 음운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²² 다문화가정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조음능력과 음운변동을 비교·분석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동의 연령을 만 3세 후반으로 선정하였다.

2.2. 선별도구

2.2.1. 설문지(부록 2)

다문화가정 중에서 자녀가 만 3세 후반에 해당하고 본인이 아동의 주 양육자인 가정을 실험집단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고²⁶ 그에 따른 기초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2.2.2. 그림어휘력 검사²⁸

그림어휘력 검사는 만 2세에서 8세 6개월까지의 아동들의 어휘 이해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총 1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방법은 4개의 그림 중 검사자가 지시하는 것을 아동이 손으로 지적하게 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백분위와 등가연령으로 환산되며, 등가연령은 6개월 단위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을 평가하여 어휘력문제가 본 과제인 조음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들을 평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어휘력 검사 결과 백분위수가 10%ile 이상인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3.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²⁹

덴버 발달 선별 검사(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이하 DDST)는 1960년에 Frankenburg W.K가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상의 이상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개발한 선별 검사이다. 이 검사는 생후 1개월에서 6세까지 유아의 발달 상태를 검사하여 정상, 의문, 이상, 검사 불능 중 하나로

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더 정확한 발달 검사를 받아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아동이 20~25개의 항목을 검사 받아야 결과를 결정할 수 있었던 DDST를 총 4영역(사회, 미세운동 및 적응, 운동, 언어) 12개 항목만 검사받아서 일차적 감별을 할 수 있게 간소화 한 것이 DDST-R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근(1990)이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유아 2,14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였다(K-DDST). 대상연령 분포는 생후 2주에서 6년 4개월이었고, DDST의 표준화 과정에서와 같이 쌍둥이, 조산아, 둔위분만, 양자, 시청각장애, 중추신경장애, 구개파열, 신체장애, 다운증후군, 급성질환 등을 가진 유아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및 운동 발달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아동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K-DDST를 간소화하여 검사하는 K-DDST-R을 사용하였으며 12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아동은 실험집단에서 제외하였다.

2.2.4. 청력선별검사³⁰

Screening Audiometer로 500, 1000, 2000, 4000Hz에서 아동의 왼쪽, 오른쪽 귀에 20dB로 들려주었을 때, 양쪽 귀가 모든 주파수에서 반응을 보여 청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였다.

2.2.5.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검사

아동이 조음기관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입술, 혀, 치아교합, 턱, 구개 및 편도의 구조를 살피고, AMR(alternating motion rate) 및 SMR(sequential motion rate)을 통해 조음기관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았다.

2.3. 본 검사 도구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 평가를 위해 빈도가 고려된 70개의 목표 자음을 다양한 음운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고 오류패턴의 분석이 가능한 APAC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점수와 개정점수 중 개정점수를 이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점수란 생략, 첨가, 대치, 왜곡을 모두 오류로 채점한 것이고 개정점수란 생략과 대치만을 오류로 채점한 것이다 아동이 왜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을, 왜곡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개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¹는 지침에 따라 개정점수를 선택하였다.

APAC¹은 만 3세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이나 취학 전 아동 수준의 조음음운 능력을 보이는 취학 아동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2세에서 6세 아동 220명의 점수와 오류패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 평가한 아동의 발음을 또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2.4. 검사절차

실험집단은 외국인 문화센터나 한글교실에 방문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한국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만 3세 후반 자녀의 주 양육자인 가정을 설문지(부록 2)를 통해 선정하였다. 아동의 어머니가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검사 장소는 센터나 해당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이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아동의 발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아동의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가능한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검사는 정상발달 아동 선별을 위해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의 청력선별검사와 조음기관의 구조 및 기능 평가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K-DDST-R 및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선별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 검사인 조음평가를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청력 및 조음기관 검

사가 약 5분 이내, 그림어휘력 검사가 10~15분, K-DDST-R이 10분 내외, 조음평가가 약 10분 내외였다.

아동 어머니의 오조음된 한국어가 아동의 조음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조음평가도 따로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조음평가 소요시간도 약 10분 내외였다.

정확한 조음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과의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므로 검사 전에 아동이 검사자에게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이 연속적인 검사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검사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거나 검사를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2.5. 자료 수집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검사 시 직접 아동의 발음을 전사하였으며, 각 평가 자료는 외부 마이크를 연결한 MD recorder(Sony, MZ-N707)로 녹음기록하고 검사 시 불충분했던 내용과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검토하기 위해 동영상(Nikon coolpix P5000)으로 기록하였다. 동영상 촬영은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서(부록 3)를 얻은 후에 실시하였다.

2.6. 자료 분석

2.6.1. 자음정확도 결과 분석

단어 반응을 보고 자음 말소리 70개 중 틀리게 발음한 말소리를 표시하고 오류유형을 적었다. 틀리게 발음한 개수를 합산하여 원점수를 계산하고 전체 말소리 70개에서 원점수를 뺀 정조음 수를 계산하였다.

2.6.2. 음운변동 분석

단어 반응을 보고 오류패턴을 분석하였다. 오류패턴은 말소리목록 검사에 해당하는 70개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단어에 포함된 모든 말소리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오류패턴의 적용 시 주의할 점은 APAC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APAC의 음운변동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전체단어 변동의 종류, 정의 및 예

음운변동	정의	예
음절생략·축약	음절이 생략되거나 축약됨	‘할머니’→[함미]
어말중성 생략	어말중성이 생략됨	‘책’→[채]
반복·자음조화	동일한 음절이나 자음이 반복됨 단어에 있는 다른 자음의 조음장소나 방법이 반복됨	‘빛’→[빔]
전형적 어중 단순화	어중중성이 생략되거나 어중초성의 조음장소에 역행동화됨 연이은 자음이 합체됨	‘침대’→[친대]
비전형적 어중 단순화	어중초성이 생략되거나 어중중성에 의해 순행동화가 일어남 조음방법이 동화됨	‘침대’→[침배]
어두초성 생략	어두초성이 생략됨	‘모자’→[오다]
첨가	음소가 첨가됨	‘우산’→[무산]
도치·이동	자음의 위치가 서로 바뀌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함	‘빨대’→[딸배]

표 4. 음소변화 변동의 종류, 정의 및 예

음운변동	정의	예
긴장음화· 탈기식음화	평음이나 격음이 경음으로 변하거나 기식 자질이 없어짐	‘포도’→[뽕또]
이완음화	경음이나 격음이 긴장 자질이 없는 평음으로 변함	‘싸워’→[사워]
기식음화	평음이나 경음이 기식 자질을 갖는 격음으로 변함	‘뱀’→[팸]
유음의 비음화· 파열음화	유음이 비음이나 파열음으로 변함	‘고래’→[고대]
유음의 단순화	유음이 생략되거나 과도음으로 변함	‘고래’→[고애]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	치조마찰음이나 파찰음이 파열음으로 변함	‘색종이’ →[택똥이]
파찰음화· 구개음화	치조음이 파찰음으로 변하거나 경구개음으로 왜곡됨	‘없어’→[업찌]
탈비음화	비음이 파열음으로 변함	‘머리’→[머리]
마찰음화	파찰음이 치조마찰음으로 변함	‘침대’→[심대]
연구개음의 전설음화	연구개음이 치조음이나 경구개음으로 변함	‘호랑이’ →[호라니]
양순음화	양순음이 아닌 자음이 양순음으로 변함	‘단추’→[반추]

음운변동	정의	예
연구개음화	연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연구개음으로 변함	‘우산’→[우상]
성문음화	/ㅎ/이외의 자음이 성문마찰음이나 성문파열음으로 변함	‘사탕’→[하탕]
치조마찰음의 치간음화	치조마찰음이 치간음이나 치음으로 왜곡됨	‘싸워’→[쓰ㄷ워]
파찰음의 치간음화	파찰음이 치간음이나 치음으로 왜곡됨	‘모자’→[모즈ㄷ]
치조마찰음의 설측음화	치조마찰음이 설측음으로 왜곡됨	‘사탕’→[스ㄷ탕]

2.7. 신뢰도

검사자간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전체 대상자 중 10%에 해당하는 세 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음장애 치료 경험이 있는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오디오 자료를 분석하게 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자간 신뢰도는 90%였다.

또한 검사자 내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전체 대상자 중 10%에 해당하는 세 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첫 검사 후 1~2 주 내에 동일한 검사자가 오디오 자료를 통하여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자내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성태제³¹는 신뢰도 검사 결과 70% 이상은 유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80~100% 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고 하였다.

2.8.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version 1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을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 자료와의 평균 비교를 위해 one-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음운변동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 아동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음운변동의 순위를 정하여 실험집단과 정상발달 아동의 음운변동 자료와 비교하였다.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제3장 결과

3.1.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

3.1.1.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 자음정확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86.65%였고,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는 93%였다. 단일표본의 t 검정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M = 60.66$, $SD = 6.41$)은 정상발달 아동 집단($M = 65.10$, $SD = 4.72$)에 비해 APAC 정조음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 = .003$)(표 5). 그러나 성별에 따른 정조음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 다문화가정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PAC) 정조음 수

집단	인원(명)	평균 ¹ ±표준편차	t
다문화가정 아동	24	60.66±6.41	-3.384**
정상발달 아동 (아동용 발음평가검사 자료 ²)	30	65.10±4.72	

¹ 아동용 발음평가검사의 자음 검사 수는 70개

² 개정점수로 산출한 경우

** $p < .01$

3.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방법별 자음정확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방법별 자음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APAC의 실시방법에 따라 각 대상자마다 70개의 초성 및 종성 말소리 중에서 파열음, 비음, 파찰음, 유음, 마찰음마다 각각 틀리게 발음한 말소리의 수를 계산하였다. 다문화가정 집단의 특성을 보고자 대상자마다 획득한 점수를 합한 후 대상자의 총 인원수(24명)로 나누는 평균값인 원점수를 산출하여 조음방법별 자음정확도의 수행력을 알아보았다.

APAC에서는 자음계열별 점수인 조음방법별 점수의 경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면 대상자의 68.3%가 +1에서 -1표준편차 사이에 위치할 것이고 95.5%는 +2에서 -2표준편차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이내에 속하는 대상자는 정상범위로 -1에서 -2표준편차 사이에 속하는 대상자는 정상발달 범위에는 속하나 다소 지체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음훈련이 요구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³² 단, APAC에 제시된 표준점수는 정규화되지 않았으므로 원점수 분포의 편포가 표준점수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밝힌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파열음, 비음, 유음, 마찰음의 수행력은 표준점수가 모두 -1표준편차 이내로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였다. 단, 파찰음의 수행력은 -1에서 -2표준편차 사이로 정상발달 범위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서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변동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음운변동이 정상발달 아동이 보이는 음운변동과 어떠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PAC에서 제시한대로 각 대상자마다 3회 이상 보이는 음운변동을 기록하여 비율로 나타내었다(그림 1).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가장 많이 보였던 음운변동은 대상자 중 46%가 보였던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로 나타났다.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에는 전체의 20%만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정상발달 아동에서는 더 어린 시기인 2세 6개월~2세 11개월에 출현하고 3세가 되면서부터는 출현하지 않는 긴장음화와 연구개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 중에서는 각각 긴장음화 8%, 연구개음화가 4% 출현하였다(그림 1).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정상발달 아동과 유사한 조음발달 패턴을 보이지만 발달 자체는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다문화가정 대상자 가운데 일본인 어머니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부록 1) 일본어의 경우 우리말과 비슷한 구문구조를 갖지만 조음에 있어서는 상이한 점이 많아 일본인 어머니 자녀의 경우 음운변동 순위가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음운변동과 다를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보인 음운변동은 전형적 어중 단순화 13%와 유음의 단순화 13%로 나타났다. 정상발달 아동에게 많이 나타났던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가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낮은 비율로 출현하였고 파찰음화의 경우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에서 특기할만한 결과로 나타났던 긴장음화 및 연구개음화의 출현은 모두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관찰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보인 음운변동은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로 38%가 나타나 정상발달 아동과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류패턴을 살펴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은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조음 수행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이 보이는 음운변동과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이 보이는 음운변동의 순위 및 비율이 달라 같은 다문화가정 내에서

도 집단 분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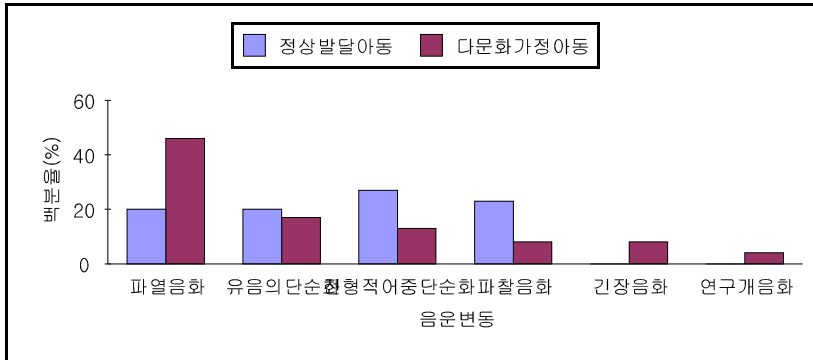


그림 1. 정상발달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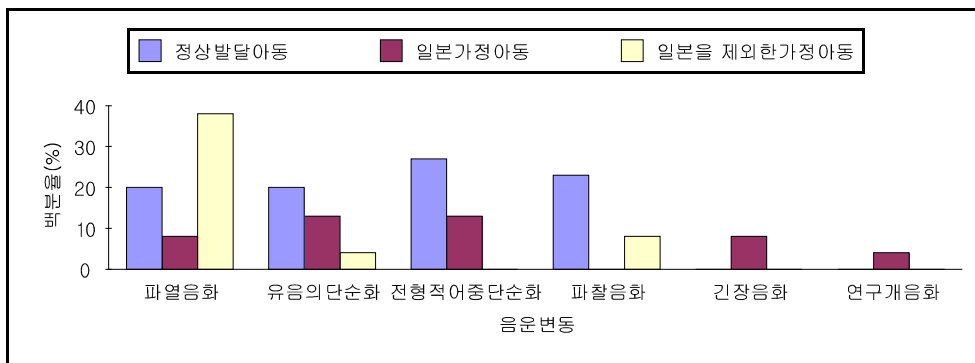


그림 2. 정상발달 아동,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변동

3.1.4.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이 동일하게 보인 음운변동

어머니와 아동이 동일하게 보인 음운변동을 표로 정리하였다(표 6).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에게 가장 많이 출현한 음운변동은 전형적 어중 단순화로 /양말/을 /얌말/로 발음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는 이완음화, 과찰음화, 연구개음화, 긴장음화로 모두 각각 1명씩 어머니와 아동이 같은 음운변동을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 24명과의 비율로 보면 29%의 아동이 어머니와 동일한 음운변동을 1회씩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인 음운변동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던 이완음화가 어머니와 동일하게 보인 음운변동에서는 1회 관찰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이 단순히 조음발달속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조음발달상에 특이한 발달양상을 보이는지를 변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조음 관련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6.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이 동일하게 보인 음운변동

음운변동	예	인원(명)	어머니출신국가
전형적 어중 단순화	/양말/→/얌말/	3	일본
이완음화	/짜워요/→/사워요/	1	중국
과찰음화	/시소/→/치소/	1	태국
연구개음화	/우산/→/우상/	1	일본
긴장음화	/사탕/→/사땅/	1	필리핀
총 인원		7	

제4장 고찰

4.1.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가 생활연령이 동일한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27,33}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음정확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²⁷ 는 물론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¹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방법별 표준 점수 결과 과열음, 비음, 유음, 마찰음은 모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정상범위¹⁵로 볼 수 있는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 사이로 평가되었고 과찰음의 경우에만 -1에서 -2 표준편차 사이로 산출되어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이나 조음훈련이 요구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³²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단일 언어 가정의 아동에 비해 자음 및 모음의 오류가 많고 불규칙한 오류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¹¹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자음정확도가 낮고 오류가 많은 이유는 음운변동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 본 연구에 해당하는 연령보다 낮은 연령대인 2세 6개월~2세 11개월에 가장 많이 보이다가 점점 출현율이 줄어드는 과찰음·마찰음의 과열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해당연령인 3세 6개월~3세 11개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긴장음화와 연구개음화도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에는 더 어린 연령에서 나타났다가 본 연구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긴장음화가 8%, 연구개음화가 4%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정상발달 아동의 조음발달 패턴과 유사하지만 초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¹⁴ 단일 언어 가정과 달리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초기에 조음발달이 느리게

진행되는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정상발달 아동과 달리 긴장도 및 기식도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단순히 조음발달이 느린 것인지 아니면 특이한 음운변동을 보이는 것인지를 변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원인으로 어머니의 음운변동과 아동의 조음발달상 특성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평음, 경음, 격음의 세 분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분류로 이러한 음운체계가 아닌 언어 환경에서 자라온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정확한 분류체계대로 조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긴장도 및 기식도에 있어 많은 오류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어머니의 오조음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가정의 경우 아동의 조음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²⁷ 아동이 어머니와 동일하게 긴장음화 및 이완음화를 보인 경우는 (표 6)에 나타나듯이 많지 않았지만 아동만 긴장음화 및 이완음화를 보인 경우는 그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그림 1).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긴장도 및 기식도의 변화에 있어 아직 체계가 확고히 잡히지 않은 아동이 오조음된 어머니의 발음을 듣고 아동의 조음발달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는¹⁶ 경음으로 대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아동이 오조음 했을 경우에 어머니가 정확한 발음으로 수정해 주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오조음된 발음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거나 유지되는 경우이다. 임상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 아동이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동의 조음 문제에 대한 대처 및 개선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와 가족들 모두 어머니의 불완전한 한국어 능력이 아이들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아이들을 보다 나은 언어습득의 환경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비교적 일찍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³⁴

한편, 전체 다문화가정 대상자 가운데 일본인 어머니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부록 1) 일본어의 경우 우리말과 비슷한 구문구조를 갖지만 조음에 있어서는 상이한 점이 많아 일본인 어머니 자녀의 경우 음운변동 순위가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음운변동과 다를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 결과 일본 다문화가

정의 음운변동 순위는 1위가 전형적 어중단순화와 유음의 단순화로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가장 많이 보였던 과찰음·마찰음의 과열음화와 서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정상발달 아동에게는 좀 더 어린 연령대에 많이 출현하는 음운변동으로 오류패턴을 살펴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은 정상발달 아동과 유사한 오류패턴을 보이지만 조음 수행력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어머니의 모국어 분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어에 따라 아동의 조음오류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임상적으로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동의 조음발달이 정상발달 아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조음능력의 발달은 느릴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오류패턴이 발달상의 오류인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특이한 오류패턴인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평가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발달에 문제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가능하면 언어습득 환경이 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잘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가정 아동에게서도 조음음운장애는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장애의 하나이며,² 조음능력도 의사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능력의 하나이다.²⁷ 그런데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관해서는 조음발달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임상현장에서 정확한 평가 및 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조음능력과 음운변동을 연구한 본 논문의 결과를 임상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 평가와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적인 조음발달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문화가정 집단 내에서도 개별아동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임상현장에서는 개별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률의 경우 검사도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³⁵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인 2005년에 간행되어 다른 검사도구의 제한점을 많이 보완한 APAC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도구만으로 아동의 조음능력을 모두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예로 APAC에서는 모음오류를 따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해당 연령인 3세 6개월~3세 11개월 아동의 경우 자음 오류에 비해 모음 오류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정상발달 아동에게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음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음의 수행력을 고려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정확도 산출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집과정에서 어머니의 출신국적에 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오조음이 아동의 오조음과 관련이 있다면 아동의 오조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모국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출신국적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나 모국어를 통제하여 언어학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연령이 3세 6개월~3세 11개월로 한정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모집하여 조음능력을 연구한다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발달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PAC)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에 대해 알아보고 정상발달 아동과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만 3세 6개월에서 3세 11개월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PAC)의 그림을 보여주고 단어 수준의 자음 검사 수인 70개 중에서 정조음한 수를 기록하여 자음정확도를 측정하고, 조음시 아동이 보인 음운변동을 기록하여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PAC)에서 제공하는 정상발달 아동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가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조음방법별 수행력도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낮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주로 관찰된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 음운변동은 정상발달 아동에게서는 더 어린 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며 일부 관찰된 긴장음화와 연구개음화는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 본 연구의 해당 연령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조음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음운변동에 있어서도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서 지체된 오류패턴을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이중언어에 노출되어 초기 조음발달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는 데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일본 다문화가정과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하여 음운변동 패턴을 살펴본 결과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은 전형적 어중 단순화와 유음의 단순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정상발달 아동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이완음화도 관찰되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어머니의 모국어 분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어에 따라 아동의 조음오류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어 특성

이 아동의 조음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일 수 있는 특이한 모음의 오류에 대해서는 검사도구의 특성 상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모음의 수행력을 고려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정확도 산출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어가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머니의 모국어를 따라 보다 언어학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민정, 배소영, 박창일.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서울: HBR&C; 2005.
- 2) Office of Scientific and Health reports. Developmental speech and language disorders: hope through research (NIH Publication No. P 88-2257).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and Communicative Disorders and Stroke. 1988; Bethesda, MD.
- 3) 이승환, 배소영, 심현섭, 김영태, 김향희, 신문자 et al. 의사소통장애개론. 서울: 하나의학사; 2001.
- 4) Van Riper C, Emerick L.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9th ed. London: Prentice Hall; 1995.
- 5) Williams GC, McReynolds LV.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articulation training in children with misarticulation. J Speech Lang Hear Res 1975;18:401-12.
- 6) 권수진.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아동과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7) 임동선.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아동의 품사별 오류유형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8) 송향근. 핀란드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2004;25:113-27.
- 9)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6.
- 10) Goldstein B. Phonological patterns in typically developing 4-year-old Spanish-English bilingual children. Lang Speech Hear Serv Sch

2001;32:153-64.

- 11) Gildersleeve-Neuman C, Davis B, Stubbe E. When monolingual rules don't apply speech development in a bilingual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1996; Seattle, Washington.
- 12) 권미지, 석동일. 이중 언어 아동의 조음특성 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2006: 271-6.
- 13) Gildersleeve-Neuman C, Davis B. Learning English in a bilingual preschool environment: change over time.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1998; San Antonio, Texas.
- 14) 황혜진, 황혜정.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00;21:69-79.
- 15) 김영태. 그림자음검사를 통한 2-6세 아동의 자음정확도 연구. 말-언어장애연구 1996;1:7-33.
- 16) 김민정, 배소영. '아동용 조음검사'를 이용한 연령별 자음정확도와 우리말 자음의 습득연령. 음성과학 2005;12:139-49.
- 17) 권경안. 한국어아동의 음운발달(II). 서울: 교육개발원; 1981.
- 18) 엄정희. 정상 말소리 발달(II): 3, 4, 5세 아동. 아동의 조음장애 치료. 한국언어병리학회. 서울: 군자출판사; 1994.
- 19) Jakobson R. Child language, aphasia and phonological universals. 3rd ed. Hauge: Mouton; 1980.
- 20) 이은정. 주기를 이용한 음운패턴 훈련법이 심한 음운장애 아동의 오류음운과정 및 문장수준의 말 명료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1) 한재순, 신문자. 조음분석의 방법. 아동의 조음장애 치료. 한국언어병리학회. 서울: 군자출판사; 1987.
- 22) 김민정, 배소영. 정상아동과 기능적 음운장애 아동의 음운오류 비교: 자음정확

- 도와 발달 유형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2000;7:7-18.
- 23) Mennen I, Stansfield J. Speech and language therapy service delivery for bilingual children: a survey of three cities in Great Britain. Int J Lang Commun Disord 2006;41:635-52.
 - 24) Edmondson R. Social capital: a strategy for enhancing health? Soc Sci Med 2003;57:1723-33.
 - 25) 설동훈.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005.
 - 26) 안원석.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7) 박상희.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산출경향.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06: 47-51.
 - 28)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1995.
 - 29) 이근. 한국판 텐버 발달 검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1990.
 - 30) Screening audiometer(AS 208). Assens: Interacoustic A/s; 2003.
 - 31) 성태제.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1995.
 - 32) 김영태.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2006.
 - 33) 권미지.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음운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4) 왕한석. 또 다른 한국어. 파주: 교문사; 2007.
 - 35) 박희정, 신혜정. 조음도구에 따른 음운장애아의 음운변동률 차이 분석. 언어치료연구 2003;12:175-188.

부록 1. 다문화가정 아동 기초정보

번호	아동연령(연령-검사일 기준)	성별	어머니 국적	그림어휘력점수
1	3세 6개월	남	일본	38
2	3세 6개월	여	중국	34
3	3세 6개월	여	필리핀	13
4	3세 6개월	여	일본	14
5	3세 7개월	남	베트남	27
6	3세 7개월	여	일본	30
7	3세 8개월	남	필리핀	40
8	3세 8개월	남	베트남	35
9	3세 8개월	여	필리핀	32
10	3세 9개월	남	중국	30
11	3세 9개월	여	몽골	36
12	3세 9개월	여	일본	41
13	3세 9개월	여	태국	51
14	3세 9개월	여	일본	38
15	3세 9개월	여	일본	32
16	3세 11개월	남	필리핀	29
17	3세 11개월	남	중국	34
18	3세 11개월	남	태국	48
19	3세 11개월	남	일본	26
20	3세 11개월	남	일본	30
21	3세 11개월	남	일본	39
22	3세 11개월	남	일본	38
23	3세 11개월	남	필리핀	23
24	3세 11개월	여	키르기스스탄	26
25	3세 11개월	여	키르기스스탄	38
26	3세 11개월	여	베트남	25

본 질문지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발달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설문지에 응답하실 때 다른 분들과 상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답변한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각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질문지를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을 답하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연구자: 류현주

(1)귀하는 2004년 0월-2005년 0월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까?

(3세 후반에 해당하도록 검사 일에 기준하여 작성함)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낮 시간대에 직접 자녀를 돌보는 전업주부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로 답하신 분만 아래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질문을 읽은 후 귀하의 해당란에 표시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1.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2.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

3. 귀하가 한국에 오기 전 사용했던 언어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 귀하가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은 몇 년입니까? ()

6. 귀하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월

7. 귀하 남편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8. 귀하 남편은 사투리를 사용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8번에 '예' 라고 답하신 분만 답해주세요.

8-1. 사투리를 사용한다면 어느 지역의 사투리입니까? ()

9. 귀하의 남편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 ③ 중학교 중퇴 및 졸업
- ④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 ⑤ 대학중퇴 및 전문대 졸업
- ⑥ 대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졸업

10. 귀하 자녀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11. 귀하의 자녀는 현재 사설 교육기관(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2.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적어주세요.

()

13. 귀댁의 평균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50만원 미만
- ③ 150-200만원 미만
- ④ 200-250만원 미만
- ⑤ 250-300만원 미만
- ⑥ 300만원 이상

※ 바쁘신 중에 설문에 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디오-오디오 녹화 동의서

본 언어평가 내용을 녹화·녹음한 자료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조음능력에 관한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날 짜 : 2008 년 월 일

보 호 자 :

검 사 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ABSTRACT

Articulation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Yoo, Hyun Joo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In Korea, the number of children raised in multicultural and bilingual environment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1990, but there have been limited reports on their articulation ability, phonological process, and so on.

Thus, the present study examined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rticulation accuracy and phonological process using 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APAC), and compared them with normally developing children's articulation accuracy and phonological proc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between ages 3 years, 6 months and 3 years, 11 months. We presented the children with pictures in APAC, and recorded the number of correct articulations among 70 consonants and phonological process that the children showed in articulation. And then, the records were compared with normally developing children's data provided in APAC.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rticulation accuracy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Second,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the change of affricates and fricatives to stop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addition, changes to tense sound and velar sound were observed in som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n case of the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the changes were observed at a younger age and did not appear at the age of the children participating in this study.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re exposed to bilingual environments and as a result their early development is slower than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Third, the Japanes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howed typical simplification of middle consonants and simplification of liquids most frequently, but the non-Japanes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howed the change of affricates and fricatives to stops most frequently. This result shows that articulation development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may be different among the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and that the children's error patterns are related to their mothers' native language.

Fourth, when we examined phonological process that both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ange to lax sound, which was not observed in the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was observed. This suggests that we nee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s articul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rticulation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 are proposed to be applicable to articula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In additio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a base for research on general articulation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articulation ability, phonological process